

미래전략실 주간브리핑 (2017.6.26)



중국,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 계획 공식 발표에 북극항로 포함

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, '일대일로 해상 협력 건설 비전' 발표(6.20)
- 이번 계획에서 중국은 3개의 '해양경제통로' 제시했으며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활용한 북극해-유럽 해양 경제통로 제시
 - ※ 3대 해양경제통로 : 중국-인도양-아프리카-지중해 / 중국-오세아니아-남태평양 / 북극해-유럽
- 동 계획의 5대 우선순위 중 '해양을 통한 번영' 항목에 북극항로 관련 계획 명시
 - 북극항로에 대한 과학적 조사, 육상 모니터링 기지 설치
 - 북극 기후·환경변화에 대한 과학연구 수행
 - 북극항로 예보, 해운환경 개선을 위한 북극권 국가에 대한 지원·협력
 - 북극항로 상업화에 대한 중국기업 참여 확대
 -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북극 지역 자원 조사 및 청정에너지 사용 강화
 - 북극 관련 국제회의·기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([전문 링크](#))

시사점

- 중국의 제2쇄빙연구선 건조 및 과학연구 수행 등 북극과학협력이 양국간 북극 경제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- 한-러 가스관 연결사업, 유라시아 고속철도 및 중국 횡단 철도의 한반도 연결사업 등 유라시아 협력 관련 우리나라 국책 사업 추진 동력 강화
- 동 계획 발표로 러시아 북극연안 항만·자원 인프라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

출연(연)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 본격화

-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 출연(연) 거버넌스 개편(안) 제시
- 기본 방향 :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의 협업과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범부처적 국가차원의 활용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
- <1안> 국과연을 대통령 직속 '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' 산하로 이관
 -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을 정책자문과 심의·조정으로 강화하고 국과연을 국가발전의 싱크탱크로 배속하여 범부처 활용
- <2안> 국과연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
 - 경제·인문사회 출연(연)과 동일 거버넌스 체계로서 협업과 융합을 통한 국가적 활용 체계 확립
- 이 외에도 국과연을 미래부 산하에 신설되는 '과학기술혁신본부(차관급)' 산하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 중([관련기사](#))

시사점

- 출연(연)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융복합 연구 강화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

문재인 정부 탈원전 선언, 친환경/천연가스 발전 확대로 이어질듯

-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발표
- 문 대통령, "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"고 밝혀
- 원전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등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
-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우려도 존재([관련기사](#))

시사점

-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천연가스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천연가스 수입 확대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력 중요성 증대